

현장 노임 대폭 상승, 공사 직종은 작년보다 13.1% 올라

- 금년 상반기 임금 실태 조사 : 전체 직종 상승률은 11.7% , 최근의 건설 경기 호황 반영 -

2002년 상반기(5월)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는 예년과 같이 전국 표본 업체 1,700개 건설 현장에서 2002년 5월 중에 지급한 직종별 시중 실지급 임금을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현장 방문 조사(타계식) 및 우편 조사(자계식)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일반건설업 등록 업체(협회 회원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반건설공사 현장에서 잘 조사되지 않는 직종들은 해당 협회 및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상반기 임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가구 및 다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 경기의 활황과 건설 경기의 호황으로 인한 건설 인력난 및 이에 따른 건설 임금의 상승이 연초부터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임금 상승이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공사 직종 13.1%, 전체 직종 11.7% 상승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전년 동기에 비하여 공사 직종이 13.1%, 전체 직종은 11.7%의 상승을 보여 시중에서 거론되는 임금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노임 단가는 협회에서 통계청으로 의뢰한 2002년 상반기 임금 실태 조사 공표와 동시에 적용일을 개시하여 다음 노임 단가가 발표되기 전 12월까지 건설공사 예정 가격 작성 등 원가 계산에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상반기 시중 노임은 8월 하순경 통계청으로부터 공표 협의를 득한

직종별 평균 임금 현황

(단위 : 원, %)

구분	2002년 5월	2001년 9월	2001년 5월	변동률 비	
				2001년 9월 대	
공사 직종(104개)	76,040	69,615	67,236	9.2	13.1
광전자 직종(6개)	107,501	95,320	92,729	12.8	15.9
문화재 직종(11개)	108,667	101,713	99,382	6.8	9.3
원자력 직종(16개)	94,878	92,079	90,049	3.0	5.4
기타 직종(8개)	81,496	74,716	72,890	9.1	11.8
전체 직종(145개)	82,197	75,874	73,559	8.3	11.7

주 : 평균 임금은 직종별 조사 직종 임금 합계를 조사된 직종 수로 나누어 산출 작성하였음.

후 9월 1일을 적용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 인상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임금 상승분에 따른 공사 원가를 조금이라도 빨리 실공사에 반영하기 위해 적용일을 앞당긴 것이다.

71개 직종이 10% 이상 올라

2002년 상반기 시중 노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48개의 일반건설업체 임금 조사표와 전문건설협회 등 협조 기관의 643개의 조사표를 회수하여 145개 건설 관련 직종의 5

주요 직종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

구분	2002 년 5월			2001 년 9월	2001 년 5월
	금액	상승률			
		2001 년 9월 비	2001 년 5월 비		
1 보 통 인 부	45,031	10.0	15.7	40,922	38,932
2 형 틀 목 공	79,997	12.3	18.3	71,251	67,648
3 미 장 공	78,939	17.0	26.9	67,451	62,196
4 철 근 공	84,113	14.9	19.9	73,192	70,167
5 조 적 공	74,460	12.0	21.5	66,461	61,286
6 콘 크 리 트 공	77,157	12.0	14.3	68,884	67,489
7 특 별 인 부	62,902	12.4	19.2	55,970	52,788
8 배 관 공	64,676	6.7	18.6	60,590	54,533
9 건 축 목 공	78,068	13.0	17.0	69,086	66,753
10 방 수 공	57,461	1.5	9.2	56,597	52,636
11 작 업 반 장	64,905	1.6	10.7	63,904	58,657
12 비 계 공	80,461	7.1	12.9	75,140	71,272
13 건설기계운전기사	60,505	6.9	5.0	56,603	57,633
14 타 일 공	81,170	20.3	31.6	67,477	61,694
15 도 장 공	70,380	17.7	22.5	59,780	57,454
	70,682	11.2	17.7	63,554	60,076

월 중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노임 집계를 한 결과, 전기에 비하여 135 개 직종이 상승하고 7개 직종이 하락하였으며 보안공, 원자력 기술자, 원자력 보온공 등 3개 직종이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 폭을 살펴보면, 10 % 이상 상승한 직종이 타일공을 비롯해 71 개 직종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7개 직종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임금은 8만 2,197 원

이번에 조사한 2002 년 상반기 전체 직종의 평균 임금은 8만 2,197 원으로 전기 (2001 년 9월)에 비해 8.3 % 상승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2001 년 5월)에 비해서는 11.7 % 상승하였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사 직종이 7만 6,040 원으로 전기 대비 9.2 % 올랐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1 %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활황을 보이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등 민간 주택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보통인부, 형틀목공, 철근공 등 건설 현장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15 개 주요 직종은 11.2 %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IT 산업과 관련한 광전자 직종은 이번에 조사한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 평균 임금이 10 만 7,501 원으로 전기 대비 12.8 % 상승하였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

2002 년 상반기 전체 직종의 평균 노임은 8만 2,197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는 8.3 %,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11.7 %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임금 추이

(단위 : 원, %)

구 분	전 직종	공사 직종	광전자 직종	문화재 직종	원자력 직종	기타 직종
2002. 5	82,197 (8.3)	73,975 (0.3) 73,747 (4.1)	76,040	107,501	108,667	94,878
2001. 9	75,874 (3.1)		69,615	95,320	101,713	92,079
2001. 5	73,559 (1.5)		67,236	92,729	99,382	90,094
2000. 9	72,485 (0.1)		65,871	90,933	101,977	87,888
2000. 5	72,400 (1.8)		65,541	90,928	102,855	87,876
1999. 9	71,137 (0.6)		64,449	90,442	106,140	83,241
1999. 5	70,730 (0.8)		64,306	90,283	102,509	83,396
1998. 9	70,179 (-)		63,608	89,092	104,196	82,570
1998. 5	1.8)		64,775	95,268	101,316	85,023
1997. 9	71,458 (-)		69,053	100,459	99,059	89,606
1997. 5	3.4)		69,227	101,291	104,650	81,416

주 : () 는 전기 대비 증감률임.

해서는 15.9 %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원자력 직종은 9만 4,878 원으로 전기 대비 3.0 % 올랐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4 %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에 문화재 직종은 전기 대비해서는 6.8 %의 상승을 보였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3 % 상승한 10 만 8,667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하반기 건설업 임금 조사 결과 연초에 일부 언론에서 큰 폭의 임금 상승을 보도하는 등 노임 상승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물론 소규모 주택의 현장 또는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일부 직종의 경우 큰 폭의 임금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건설협회의 임금 조사는 대규모 공사 현장, 혹은 회원사인 중견 건설업체들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노임 인상폭과 이번 임금 조사와는 약간의 격

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반 건설 현장의 노임 기재시 하도급 업체들의 작업 시간에 대한 부정확성과 세금과 관련하여 실지급액의 축소 기재 등 적정한 실지급 임금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노임 기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꾸준한 노임 상승세 예상

건설 물량 및 노동력의 수급 상황이 임금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최근 전개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의 기능 인력난과 건설 공사의 꾸준한 증가로 하반기 임금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상반기 임금 실태 조사시 업계의 의견을 구한 바 조사에 응한 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하반기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평가와 이에 따른 젊은 인력의 기피, 불안정한 노동 현장 구조 등이 개선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설 현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충분한 지원 등 건설업에 대한 젊은 층의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망된다.



최용천
대한건설협회 기술실 원가품셈팀 대리